

GIST, '기술경영 포럼' 개최

AI 시대 산업전환·지역혁신 방안 모색

- 22일(금) 오후 2시 서울에서 'AI, 산업전환 그리고 GIST의 역할' 주제로... AI 기반 산업 재편, 지역 생태계 지속 가능성 등 논의하며 실천적 기술경영 중요성 강조
- 임기철 총장 "AI 교육·연구 기반과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갖춘 GIST가 산학연 협력 기반 융복합 기술경영 교육 모델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견인할 것"



▲ 22일(금)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토포즈홀에서 열린 'GIST 기술경영 포럼(주제: AI, 산업전환 그리고 GIST의 역할)'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2일(금)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토포즈홀에서 'AI, 산업전환 그리고 GIST의 역할'을 주제로 기술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 전환과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산업계·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임기철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객재원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아주경제 논설위원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영섭 웨이코노미 대표, 김진호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 AI 기반 산업 재편과 기술주권 확보 ▲ 피지컬AI 시대의 기업 전략 ▲ 지역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설계 등 다양한 담론이 오갔으며, AI 시대 산업 전환과 지역 혁신을 뒷받침할 기술경영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



▲ 임기철 총장이 좌장을 맡아 'GIST 기술경영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STEPI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AI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기술생태계 안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충남대 김태균 교수는 "피지컬AI 시대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는 AI 역량 강화가 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주경제 객재원 논설위원장은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기술경영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 도구"라고 정의했다.



▲ 객재원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아주경제 논설위원장)가 'GIST 기술경영 포럼'에서 지역혁신선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확보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기술경영은 그 역량을 지역경제와 글로벌 미래로 연결하는 전략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연구 기반과 창업·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GIST가 광주·전남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을 가속화하며,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경영 교육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